



**제4차 국제통계계산학회**

**아시아학술대회개최**

한국통계학회(회장 김철웅)에서 주관한 제4차 국제통계계산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tatistical Computing, IASC)의 아시아학술대회(Conference of Asian Regional Section, ARS)가 지난해 12월 5일부터 3일간 부산조선비치호텔에서 개최되었다. 'e-statistics for information society'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정보화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통계계산 분야에 대해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의 슈니치 아마리(Shunichi Amari · 일본), 컴퓨터 금융(Computational Finance)의 닉 피셔(Nick Fisher · 호주),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의 안토니 운빈(Antony Unwin · 독일), 통계소프트웨어(Statistical Software)의 준지 나카노(Junji Nakano · 일본)와 울프강 해들레(Wolfgang Haedle · 독일), 식스시그마(Six Sigma)의 박성현(한국), 통계이론 분야의 치 쟁(Zhi Geng · 중국) 등 해당 분야의 전문 과학자들이 초청되었다. 또한 8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재창 IASC회장, 오정남 통계청장, 수기야마(Sugiyama) 일본통계학회회장, 피서 호주통계학회회장 등 국내학자 80여명과 외국인 학자 80여명 등 총 160여명의 학자와 연구원이 참석하였다. 한국통계학회는 이번 학술행사를 통하여 관련분야의 아시아 및 세계 학자들과 활발한 연구교류 및 정보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통계계산 분야에서도 국내학자들이 세계와 나란히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차기 ARS의 회장으로 왕 풍(Wing K. Fung, 홍콩대학) 교수가 선출되었다.

**과학기술인 애로사항 해결할**

**'고충상담센터' 신설돼**

과학기술부가 종합조정과에 '과학기술인고충상담센터'를 신설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에 설치된 '과학기술인고충상담센터'는 과학기술부가 2002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온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보다 많은 대화 기회와 현실성 있는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는 일선 연구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이 곳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은 애로사항을 실시



사진 왼쪽부터 과학기술부 최석식 과학기술정책실장, 이승구 차관, 채영복 장관, 권오갑 기획관리실장.

간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된다. 고충상담을 원하는 과학기술인은 직접 방문(과학기술부 종합조정과)하거나 전화(02-503-7659, 7660) 또는 인터넷(www.most.go.kr)을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진대제 · 터보테크 장흥순 대표**

**'올해의 테크노 CEO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는 제1회 '올해의 테크노 CEO상' 수상자로 대기업 분야에 진대제 삼성전자(주) 대표이사과 중소기업 분야에 장흥순(주)터보테크 대표이사를 각각 선정했다. 진대제 삼성전자(주) 대표이사는 R&D 투자에 의한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끊임없이 제고한 점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주)는 매년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비용(2000년 1조 9000억원)을 신제품 및 첨단 기술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2002년 세계 시장점유율을 2001년(27%) 보다 5% 가량 끌어올렸다. 또한 디지털 TV, 광저장장치(ODD), DVD플레이어 등 7개의 디지털 제품 부문에서도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시켜 자사의 디지털 미디어 네트워크 부문의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며, 경영의 선진화·효율화를 통해 세계 Top 3의 디지털 e-Company로의 도약에도 기여했다.

장흥순(주)터보테크 대표이사는 연 매출 15~18%를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공작기계용 컴퓨터수치제어장치(CNC)를 비롯한 산업용 제어장치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기계 전자분야의 핵심부품과 장비의 대일 의존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이외에도 공작기계 관련 CAD/CAM 시스템 및 기계가공용 CNC 시뮬레이터 등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에도 수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주)터보테크가 개발한 교육용 CNC 컨트롤러로 교육을 받은 인력이 속속 산업 현장에 투입되면서 국내 공작기계회사의 국산장비 채용이 늘어나 수입대체에 기여했다.

**"산학연계 활성화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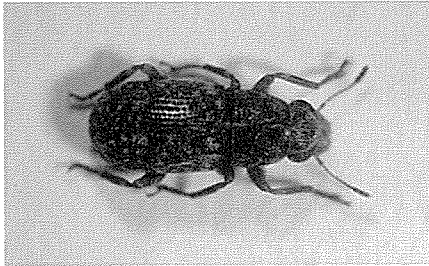
**산자부 조사 결과 발표**

산업자원부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대학 산학연계 교육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학연계 부족이 이공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대학 및 기업 관계자 83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4점 만

점 기준으로 볼 때 현장사례를 통한 교육부족은 3.25점, 대학과 산업체간 교류 부족은 3.21점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산학연계 프로그램은 '보통 이하'인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 대상자들은 산학연계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재정지원 확대(66%)를 꼽았으며, 대학 평가시 실적반영(13.7%)과 제도정비(10.7%)도 시급한 과제라고 답했다.

##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한국 미기록종 발견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현규) 자연사연구실 연구팀이 북한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곤충류에서 한국 미기록종 3종을 비롯하여 1000여 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발견된 한국 미기록종은 노랑띠의병벌레(신칭), 얼룩무늬긴썩덩벌레(신칭), 흑소바구미(신칭)이며,



북한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이번에 처음 발견된 흑소바구미.

식물류는 두 종의 수생식물로 북한산에서 기록되지 않은 구와말과 큰가래이다. 또한 환경부 보호야생 동식물인 고란초의 자생지와 말뚝가리의 서식지가 발견되었으며, 어류는 도시의 밀집과 수계의 차단으로 2종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의 지질은 중기 유라기에 관한 흑운모 알칼리 화강암과 제4기의 충적층으로 밝혀졌다.

## 정통부, 정보화촉진기금

### 3560억 지원 확정

정보통신부는 모두 3560억 원 규모의 2003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은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 기술(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등에 IT 기

술개발과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을 장기(2년 거치 3년 상환)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정보통신부의 지원 내용을 보면, IT설비 투자확대 지원사업 560억 원(현금지원 460억 원, 임대지원 100억 원), 정보통신 응용기술 개발 지원사업 2000억 원(기술담보대출 1000억 원 포함), 선도기술 개발 지원사업 1000억 원이 포함됐다. 2003년부터는 수시접수제가 본격 시행되고 설비투자 자금 지원 한도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위탁기관으로 기존 한국산업은행 외에 기업은행이 추가로 선정돼 사업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융자금리는 변동금리이며, 내년 1분기를 기준으로 IT 설비투자 자금은 5.42%, 기술개발 자금은 4.17%(대기업은 4.67%) 수준이다. 융자 신청은 2002년 12월 23일부터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각 지방체신청에서 연중 수시로 받으며, 다만 IT 설비투자 자금은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주)센텔에서, 기술담보 대출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각각 접수한다. 정통부는 이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2002년 12월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홈페이지([www.ita.re.kr](http://www.ita.re.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 정보통신정책국 산업기술과 02-750-2362.

## 피카소정보통신,

### 정보통신중소기업 대상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경영실적이 가장 뛰어난 기업에 주는 2002년 정보통신 중소기업 대상에 피카소정보통신(대표 김동연)이 뽑혔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올해의 정보통신 중소기업 시상식 2003년도 유망 중소 정보통신기업 중서 수여식'을 김태현 정보통신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에프씨아이(대표 윤광준)과 하우리(대표 권석철)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펜타마이크로(대표 정세진) 등 6개 기업이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차세대 인터넷 가입자망 무선통신 디지털방송 등 11개 분야의 95개 우수 중소기업이 2003년도 유망 중소 정보통신기업으로

선정돼 앞으로 2년 동안 정통부 지원을 받게 됐다. 정통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모두 590개 유망 중소정보통신기업을 선정해 자금 지원 혜택과 기술 지도 등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팬택 등 12개 상장기업과 엔씨소프트 등 59개 코스닥 등록기업을 배출했다. 또한 기업별로 평균 4.5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업체 당 평균 269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기여하는 등 기업의 성장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 과학기술원 김상돈·남수우 교수

### 제5회 한국공학상 수상

금속 재료분야의 남수우 교수(한국과학기술원)와 화학공학분야의 김상돈 교수(한국과학기술원)가 2002년 한국공학상을 수상했다. 한국공학상은 국내 과학기술연구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공학분야에서 세계정상수준의 연구성과를 보여주고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재료분야의 수상자인 남수우 교수는 새로운 재료강도학 이론을 적용한 최첨단 비열처리형 압출용 알루미늄합금의 발명 및 기술이전에 따른 제품 양산과 국제공인 합금번호를 국내 최초로 등록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화학공학분야의 수상자 김상돈 교수는 삼상유동층 반응기에서 열 및 물질 전달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화학공학분야의 수상자



2002년 한국공학상을 수상한 김상돈 교수(사진 왼쪽), 남수우 교수(사진 오른쪽).

로 선정되었다. 한국공학상은 1994년부터 공학분야를 4군으로 나누어 각 군별 1명씩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2000년까지 총 9명이 이 상을 받았으며, 이번 수상자에게는 대통령령상과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된다.